

10대에게 들려주는 개인주의 이야기



개인주의를 둘러싼 편견과 오해 토크하기

왜 개인주의가 문제일까?

배민 저, 1만4천원, 반니

누군가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와 같다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것이 우리 삶에 꼭 맞다고 여긴다. 개인주의란 정확히 무엇일까?

저자 배민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꽤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떠올린 생각이었으며, 사유재산·시민권·빈부격차 등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교실과 사회 곳곳에서 개인주의를 둘러싼 갈등이 생겨나 지금, 개인주의가 무엇인지 한눈에 살펴보고 문제점을 생각해 보게 하는 저서이다.

과거에는 흔히 서양 문화에는 개인주의가, 동양 문화에는 집단주의가 깔려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서양 문화와 우리 문화를 구분하는 것조차 무색해진 지금, 개인주의는 많은 사람에게 삶의 태도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인의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 시스템만을 경험한 청소년 세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박선욱 기자 sobahk@skyedaily.com

문제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개인주의가 무엇인지를 두고 여전히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주의 사상은 우리 역사 안에서 무르익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 사회에 오해와 편견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동일시하는 시선이다. 개인주의가 무조건 옳고 집단주의는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이러한 오해와 충돌은 결국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왜 개인주의가 문제일까?’는 개인주의를 둘러싼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오용을 막기 위해 쓰였다. 송의여고 역사 교사이기도 한 저자 배민은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은 강해지는 데 반해 그것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을 발견했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개인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펜을 들었다.

이겨놓고 싸우는 88개 삶의 자세와 가치



‘무지개 원리’로 깨달은 인생교과서

내 인생의 무기

최보기 저, 1만6천원, 새빛

스스로의 부족함과 좌임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인생의 무기에 설득력을 담아낸 책이 나왔다.

이 책은 흥보대행사 대표·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최보기 칼럼리스트가 ‘삶의 지혜와 가치 88가지’를 소개하면서 ‘내 인생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저자는 6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던 시절에 힘이 돼 주었던 국민 인생 교과서로 밀리언셀러가 된 차동엽 신부의 ‘무지개 원리’에서 깨달은 인생이야기에 자신의 경험을 더해 88개의 삶의 자세와 가치를 전하면서 ‘겨장치는 않지만 평범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당신의 삶이 성공한 삶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 책에 대해 김형민 작가는 “최보기의 ‘무기’는 새롭지 않으나 아주 모르게 산뜻하고, 문득한 이야기 같지만 매만진다 보면 손끝에 뽀족함이 느껴지며, 82년 청룡 연월도나 18척 장팔사모는 아낀지언정 내 손에 맞는 짝돌처럼 손아귀에 힘이 가게 만드는 글 문치로 이어진다. 그리고 양념처럼 자신의 글 뒤에 얹어 두는 옛 사람의 경우는 매우 인상적인 고명이다”라고 서평을 적었다.

이 책이 일반 자기계발서와 다른 것은 무조건 자기만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선부른 충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 스스로의 부족함과 좌임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박선욱 기자 sobahk@skyedaily.com

진실과 거짓의 혼돈... 잔 다르크를 깨우다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 ‘잔 다르크’ 이야기를 그린 연극 ‘세인트 조앤’이 10월5일부터 30일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오른다.

‘가장 독창적인 시선의 잔 다르크 이야기’로 평가받는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으로, 그가 노벨상을 받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작품이다. 국립극단이 지난 1963년 한국 초연을 선보인 데 이어 두 번째로 올린다.

정치·종교가 타락한 시대의 한가운데서 있던 여인 ‘조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조앤은 ‘병사의 복장을 한 여성’으로 남녀의 역할이 철저히 분리돼 있던 중세 시대 별난 여인 취급을 받지만 신의 목소리에 따라 용맹하게 싸워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오를레앙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그럼에도 교회와 영주들은 자신의 이권만을 내세우며 조앤을 모함한다.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판대에 선 조앤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 100여년 전 쓰여진 고전이지만,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돼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지금의 사회에도 유효한 물음을 던진다.

연출은 국립극단 단장이자 예술감독인 김광보가 맡았다. 국립극단 부임 후 처음 선보이는 연출작이자 3년 만에 선보이는 연극 연출작이다.

조앤 역에 백은혜, 샤를 7세 역에 이승주가 출연한다. 올해 시즌단원 중 최고령인 박용수를 비롯해 박상중·유연수 등 중년 배우들과 강현우·김다현·김수량·박진호·윤성원·이동준·장석환 등 젊은 배우들이



연극 ‘세인트 조앤’이 다음 달 5일부터 30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사진은 ‘조앤’ 역의 백은혜.

뉴스

국립극단, 조지 버나드쇼 희곡 ‘세인트 조앤’ 선배 백은혜·이승주 출연, 10월5일~30일 명동예술극단

이 출연해 연기 앙상블을 선보인다. 김광보 연출은 “오랜만에 작업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현대 사회는 가치관이 전도되면서 점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

게 일어난다. 이 작품은 조앤이 진실을 찾아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그 진실이 어떻게 오도되고 망가지며 화형에 처해 지는지 보여줌으로써 동시대성을 획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월9일 공연 후에는 김광보 연출, 백은혜 배우가 함께하는 ‘예술가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또 10월28~30일 공연에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한국수어통역, 한글자막을 제공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도 예약제로 운영한다. 오는 11월엔 울산현대예술관 대공연장, 12월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다. 스키아데일리/뉴스

경기예술인이 선보이는 ‘셰익스피어 5대 희극’

뮤지컬 ‘한여름 밤의 꿈’ 16~18일 경기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16~18일 경기지역 예술인들이 펼치는 뮤지컬 ‘한여름 밤의 꿈’을 소극장에서 공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공연은 셰익스피어 원작 ‘한여름 밤의 꿈’을 뮤지컬 형태로 각색해 경기아트센터가 자체 제작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경기 지역

배우 17명이 출연한다. 원작과 달리 단군신화의 태백 신시(神市)를 배경으로 한다. 셰익스피어 원작과 즐겨리는 유사하지만 우리나라 신화의 요소를 적극 활용해 관객들에게 더욱 신선하게 다가갈 전망이다.

장용휘(전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백두환영’역을 맡은 탤런트 한인수를 비롯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연기를 펼친다. 독창적인 연출과 더불어 배우들이 선보이는 노래와 춤이 공연



뮤지컬 ‘한여름 밤의 꿈’ 포스터.

뉴스

에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뮤지컬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 원작의 익숙한 내용을 독창적으로 각색한 공연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제작하는 작품인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입장권 예매는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다. 한편 경기아트센터는 ‘2022 경기도예술회복지지원사업’의 하나로, 발레·연극 등 프로젝트 공연을 자체 제작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출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지역 무용수들과 함께 ‘발레갈라 콘서트’를 선보였다.

농협경제지주

가까이 하면 더욱 안전한 우리축산물

농협안심한우
농협안심한돈
농협안심계란
농협안심축산

우리나라 축산물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농협안심축산 사업은 전국 농축협과 함께 합니다.